

캠코 대경본부, 온누리 상품권 전달 기사전송 2013-07-25, 21:33:29



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 대구경북지역본부(본부장 백서룡)는 25일 폭염 속에 무덥고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는 폭방주민들의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대구폭방상담소에 폭서기 물품구입을 위한 후원금으로 2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.

또 폭방주민들에게 서민금융지원 업무인 국민행복기금 홍보를 위해 폭방주민 방문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졌다. 캠코 대구경북본부는 2011년부터 폭방주민들의 폭염나기 및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지속적 지원과 함께 단순 기부에서 벗어나 재능기부(신용교육)를 병행 실시해 호응을 받고 있다.

백서룡 캠코 대구경북본부장은 “앞으로도 지속적 후원활동 뿐만 아니라 캠코가 수행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지원 업무를 통해 폭방주민들의 실질적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.”고 말했다.

캠코는 희망 리플레이(Replay) 사업을 통해 저소득 다문화가정·한부모가정·독거노인·폭방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. 강선일기자